

질병관리청장, 유엔총회에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국제 공조 강조

- 제81차 유엔총회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고위급회의」 정부 수석대표 참석,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한국의 기여 의지 강조
- 주요국 공중보건기관·국제기구와 글로벌 보건협력 방안 논의
-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창립 20주년 고위급 행사에서 패널로 참여해 보건혁신과 형평성 강조

【국정84-5】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제81차 국제연합(UN) 총회 보건분야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공중보건기관 및 국제기구와 보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9월 25일(금) 개최되는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고위급회의(High-level Meeting on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팬데믹 대응 경험과 국제사회 기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가 미래 팬데믹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형평성과 연대의 원칙에 입각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다자·세대 간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다.

각국 정상급·고위급 대표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며, 회의 결과로 향후 국제사회의 팬데믹 대비·대응 방향을 담은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 채택이 예정되어 있다.

*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 유엔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채택하는 문서로, 해당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원칙과 협력 의지를 제시

임 청장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감시·조기탐지 및 신속대응 역량과 국가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뉴욕 방문 기간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싱가포르 감염병청(CD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감염병혁신연합(CEPI), Resolve to Save Lives(RTSL) 등 주요 공중보건기관 및 글로벌 보건 파트너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는다.

양자면담에서는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감염병 감시와 위기 대비·대응, 지역 보건안보, 백신 연구개발과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등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9월 23일(수)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창립 2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에 패널 연사로 참석한다. 「혁신에서 접근으로: 향후 20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국의 보건혁신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진단·의약품·백신 등 혁신의 성과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혁신적 치료법과 의료기구 발굴을 통한 보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창설된 WHO 산하 국제보건기구('06.9월 설립)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를 통해 확인했듯이 팬데믹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도 감염병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지아 (043-719-7750)
		담당자	연구관	전채민 (043-719-7752)

